공조

2017
SUMMER
VOL.045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Quarterly Magazin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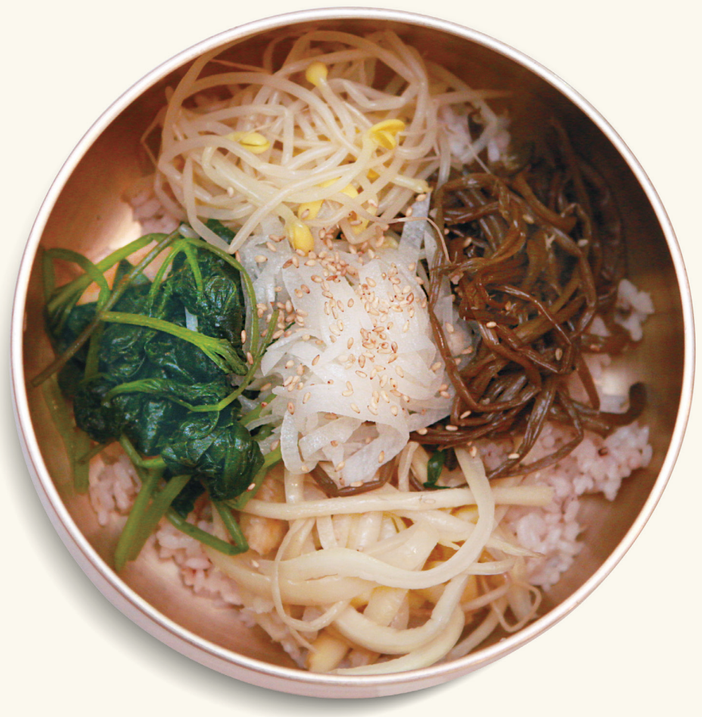
정책 가이드
탑승자 확인제도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여보세요 1345
외국인이라 낯선 한국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타운 스케치
정조의 꿈이 깃든 도시에서
세계인이 꿈꾸는 도시로
수원 '코리아 드림촌'

안동 헛제삿밥

따뜻한 거짓말, 맛있는 거짓말



안동의 헛제삿밥은 제사를 핑계로 쌀밥을 먹기 위해 '거짓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했다. '제사 덕에 이밥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당시 쌀밥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러니 조상을 기리고 후대의 복을 빌기 위해 좋은 재료로 푸짐하게 차린 제삿밥은 별미 중의 별미였다. 삼색나물을 밥에 비벼먹는 비빔밥의 형태지만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추장대신 집 간장을 사용해 자극적이지 않고 정갈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양반가는 조상을 기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 접빈객'을 으뜸으로 꼽았다. 이러한 문화 때문에 '객귀밥', '거리밥'이 탄생했다. 집 밖에도 상을 차려 제사를 받지 못하는 넋을 위로했고 밖에 차려진 음식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안팎으로 정을 나누는 제삿밥에서 한국의 따뜻함이 한 상 가득 느껴진다.

글로벌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make global Korea even b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드라운 흙 위로 고개를 내밀던 새순이 어느새 훌쩍 자라
푸름을 자랑하는 여름이 왔습니다.
2017년,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기며 어느 때보다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마다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9일에는 '세계인의 날' 10주년 기념 축제를 열어 내 ·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체류 외국인이 법률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국내 거주 전체 외국인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새 정부 하에서도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과 공감되는 외국인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Greetings to all readers!
The seeds, popped out of the ground in spring, have swiftly grown into plant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exceeded 2 million last year. Understandably, people have shown interest in immigration policy more than ever and we have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we are in.
On May 19, we held events for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Together Day". Korean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took th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We will keep making every endeavor to elimin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and create an atmosphere where every individual can display his/her ability.
This year, we also expanded the "Village Lawyer system" not to leave any foreign residents in blind spots in laws. Now, any foreigner residing in Korea can take advantage of it.
We will continue to exert ourselves to implement immigration policy respecting human rights of foreigners and gaining sympathy from Korean citizens in the new government.

Commissioner,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m Woo-hyeon

공존
2017 SUMMER VOL.045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Soci Net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표지이야기
한국 청년 조계연, 미국 청년 마일스, 한국의 대학에서 친구로 인연을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파트너까지 됐다. 어려운 점이 많지만 친구와 함께라 즐겁다는 그들을 '공존'에서 만나봅시다.

〈공존〉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여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계간 〈공존〉 2017 여름호 통권 제45호 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7년 07월 | **발행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CONTENTS

02
테마 엿보기
맛있는 거짓말, 안동 헛제삿밥

03
EDITOR'S MESSAGE

06
THEME INFO

08
공존에세이
북촌 우리 집 게스트 하우스의 주인장
박인숙 씨가 말하는 함께 사는 맛

10
타운 스케치
세계인의 꿈이 자라는 도시
수원 '코리아 드림촌'

16
Old & New
시간을 뛰어 넘은 비교
비가 와서 즐거운 징신 VS 장화

18
People & People
'트리프렌드'의 대표 조계연, 매니저 마일스의
우정과 사업을 넘나드는 이야기

22
생활의 발견
똑똑, 방 보러 왔어요~
한 지붕 지구촌 사람들의 각양각색 집 구하기

24
정책가이드
탑승자 확인제도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28
출입국 사람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30
요즘 뜨는 한국어
신조어도 배우고 한국의 이슈도 배우는
요즘 뜨는 한국어 'HIP한 혼족 트렌드'

32
공존하는 사람들
다양한 재한외국인에게 듣는
그들의 한국살이와 꿈 이야기

36
여보세요 1345
외국인이라 낯선 한국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38
공존 PLACE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작아도 누구보다 크게 일하는 그들

42
전문가 기고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을 향하여
하나의 시도, 한-아세안 이주네트워크

44
출입국 NEWS
상반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뉴스

48
당신의 한국을 보여주세요
〈공존〉 사진공모전
한국의 전통시장을 맛보고 즐기는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50
앱북 광고

51
앱 TO YOU
손안의 앱으로 대한민국을 누려라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에게는 세계인과 안전하게 어울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 출입국자 수는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를 품은 대한민국의 기록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다.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4월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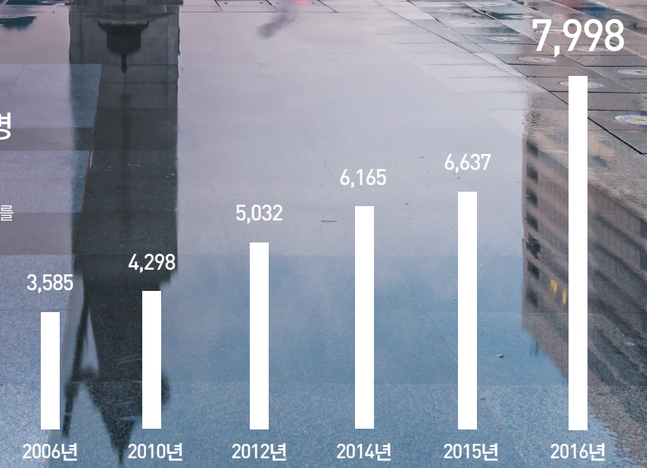
세계를 품은 대한민국

2016 출입국자 수

출입국자 약 8,000 만 명

대한민국 출입국자 수는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2016년 총 출입국자는 7,998만 명으로 8,00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한민국, 실감이 납니다.

출입국자 **증가현황**
(단위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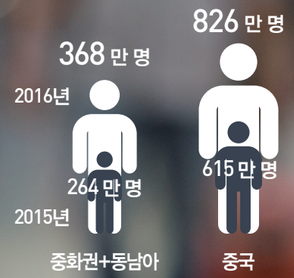


(동남아 등 :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가별 외국인 입국자

여전히 중국인 강세 그러나 동남아 등 외국인 약 40% 증가

외국인 입국자는 여전히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동남아 등의 입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동남아와 그 주변국가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전체 등록자 700 만 명 돌파

2012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등록자 100만 명을 기록한 이래 2016년,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 등록자수의 큰 증가는 없으나 이용자 수는 31.5% 늘어났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0,000 명 넘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6년 8월 말 최초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합니다. 법무부는 2021년경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변화 추이**
(단위 : **만 명**)

2007년	2014년	2015년	2016년
107	180	190	205

또 하나의 가족, 어서 와 우리 집에

우리 집 게스트 하우스 관장 **박인숙**

어린 시절 툇마루에 앉아 '월튼네 사람들'이라는 미국드라마를 본 기억이 있다. 흑백 브라운관 너머 행복한 대가족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월튼을 짝사랑하며 대가족을 꿈꾸던 어린 내가 자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한솥밥을 먹는 중이다. 찌개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 가끔은 향신료 듬뿍 카레까지 그 어느 집보다 진한 향기가 나는 것은 함께한 식구들 덕분이겠지.

비가 와서 생긴 일, 15년 만의 정모

마당에 빨래 대신 종이 뭉치가 널렸다. 그 동안 가문 날이 계속 되더니 어젠 하루 종일 비가 세차게 내려 집안에 물이 찼기 때문이다. 덕분에 상자 안에서 잠을 자던 방명록과 편지다발이 세상 구경을 나왔다. 침수된 모습을 봤을 땐 이를 어쩌나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막상 볕이 나고 마당에 말리고 보니 괜한 일에 발을 굴렀구나 싶다. 각국의 언어로 쓰여져 한옥 마당에 누워있는 종이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내가 북촌에 자리 잡아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한지도 벌써 15년째다. 말리고 있는 종이는 그 동안 우리 집을 거쳐 간 사람들이 써준 방명록과 편지들로 오랜 친구들과 급작스레 모임을 한 격이 됐다. "못 본 사이 많이 늙었네 누렇고 쪼글쪼글해졌어~" 종이에게 실없는 농담을 해본다. 일본과 호주에서 보낸 8년간의 외국생활은 한국으로 돌아와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한 계기가 됐다. 이국 땅에서 차별과 예쁨을 동시에 받으며 살아보니 저절로 교포와 이방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그들이 즐길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동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우리 집엔 각국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손님에서 친구가 된 인연도 제법 된다. 방문을 기다리지만 않고 다문화가정을 초대해 바느질도 하고 음식도 나눠먹은 적도 있다.

외국 손님이 한옥을 봤을 때 감탄하는 부분이 여백의 미다. 장식으로 공간을 채우지 않고 사람을 담으려고 하는 여유로움, 그런 여유가 있어 한옥에 들어서면 마음이 편해진다. 한옥은 한국의 전통가옥이고 흔히 전통이라 하면 닫혀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한옥은 넉넉하고 열린 공간이다. 역사적으로도 북촌은 근대화를 꿈꿨던 유생의 움직임과 일제강점기 나라를 지키려는 자주의 움직임이 함께 공존했다. 근래에는 한류바람을 타고 북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외교의 장이 되고 있다. 이 어우러짐의 정신이 북촌과 우리 집 게스트하우스를 키워낸 토대다.

세련된 잠자리가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탄생한다

식구란 한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진짜 가족끼리도 밥상에 둘러앉기 힘들어졌지만 각국의 식구들을 챙겨야 하는 나는 손이 저절로 커져 이제는 1인분의 양을 가늠하기가 더 힘들다.

함께 즐기는 맛 중에서 으뜸은 김장 담그기이다. 매년 김장을 담는 시기에 맞춰 방문하는 일본인 친구도 있을 정도니까.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마당 한쪽에 쌓아두는데 그 자태가 한 장 뚝 떼서 입에 넣지 않고는 못 배긴다. 팔뚝까지 올라오는 고무장갑을 나눠 끼고 양념을 버무리다 보면 국경을 뛰어넘는 수다가 시작되고 뜨끈한 돼지고기 수육이 나왔을 때 정점을 찍는다. "이게 한국의 정이야." 너스레를 떨어가며 고기 한 점 김치에 말아 입에 넣어주다 보면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다. 수다와 함께 잘 버무린 김치는 익은 뒤 식탁에 올리는데 아삭아삭 먹다 보면 그날의 추억까지 입안에 감돈다.

영국인 양어머니와 함께 친모를 찾으러 한국에 온 분에게 해주었던 송별 파티도 기억에 남는다. 결국 친모를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양어머니와 함께 방문했던 한국에서 가족애를 다시 한번 새기고 갔을 거다. 인종이 다른 모녀지만 얼굴이 닮게 보였다면 내가 지나치게 감상적인 걸까? 하지만 정말 그랬다. 서로의 와인 잔을 채워주며 처음 모녀의 인연을 맺었던 때를 회상하는 둘의 모습은 엄마와 딸 그 자체였다. 지금 우리 집 건넛방에는 프랑스에서 유학 중인 큰아들을 대신해 아들의 친구 '리아'가 묵고 있다. 아들의 빈자리가 가끔 허전했는데 이제 그 빈 곳을 프랑스 딸이 채워주고 있다. 리아의 허리가 배길 것 같아 두툼한 목화 솜 이불을 두 겹 깔아 놓고 보니 내 피로가 다 풀리는 듯하다.

이제 나는 리아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녀의 한국 엄마로 살 참이다. 이게 사는 맛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원 '코리아 드림촌'

정조의 꿈이 깃든 도시에서 세계인이 꿈꾸는 도시로

서울에서 전철을 타면 한두 시간, 주변 소도시나 대전에서는 차로 두 시간 내외면 중부내륙지역의 중심, 수원에 도착한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수원은 비상한 머리로 조선왕조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정조의 '수원화성'이 있는 도시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시에 이국의 문화까지 더해져 세계인이 꿈꾸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3만 6천 여명의 체류 외국인 때문이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수원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글 **김경주** 사진 **김윤희** 출처 **수원시 포토뱅크**

전통의 味와 이국의 味가 어우러진 매산시장

매산시장은 수원역 앞 천변이 흐르던 곳에 노점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매산시장으로 불렸고, 현재는 복개천 위에 자리하고 있다. 시장의 이름, '매산'에서 '매(梅)'는 매화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의미하는 고어(古語)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대신 쓴 것인데 시장이 위치한 매산동에 하천이 있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 매산시장은 주변 대형시장이나 마트보다 물건값이 싸서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게 되었고, 전통시장인 이곳에 이국 음식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시장 초입부터 인도-네팔 음식점 '수엠부' 간판이 반긴다. 인도인이 운영하는 '수엠부'는 이미 수원의 명물이다. 특유의 향신료 맛이 강한 커리와 난, 탄두리 치킨 같은 대표적인 인도음식과 다양한 현지 메뉴로 진짜 인도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남편과 함께 이 자리에서 10년째 '수엠부'를 운영하고 있는 구룽 난다 씨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와있는 인도사람들은 물론 한국인들도 가게에 많이 찾아온다고.

'수엠부'를 지나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서면 매산시장의 독특한 매력이 빛을 발한다. 한국 식료품 가게 옆에 중국 상인이 중국 식재료를

3人3色 Interview

결혼이민자들도 적극적으로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죠!

몽골인 잉캐 & 중국인 박경희

"벌써 한국생활 10년차에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네요. 수원엔 체류 외국인들도 많고, 문화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해요. 예전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봉사활동부터 아시아문화연구원의 다문화 극단 MOA(Mom of Asia) 등 다양한 다문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국인들과 소통해야 아이들도 편견 없지 자랄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제 모국어인 몽골어를 가르쳐요. 결혼이주민들의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道

내어놓고 장사를 하는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리라. 시장 골목 중간쯤에서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유혹하는데,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발을 재촉하면 팔뚝 길이만한 중국식 꽈배기가 한가득 쌓여있는 가게를 발견한다. 가격도 착한 꽈배기를 한입 베어 물면 빠삭한 튀김 속에 숨겨진 촉촉한 속살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수원 내 체류 외국인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은 식사대용으로 간단한 빵 종류를 사먹는 것이 일반적이라 꽈배기 외에도 잡채나 팥으로 소를 넣은 호떡과 중국식 찐빵가게들이 매산시장 곳곳에서 성업 중이다.

시장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보자. 시장 중간까지 빼곡히 늘어선 식료품 가게를 지나면 중국 · 베트남 음식점이 즐비하다. 동남아 음식 매니아라면 매산시장의 베트남 전통음식점의 쌀국수를 권한다. 베트남 아줌마가 전통 베트남 음식을 내어놓는데 그 손맛 때문인지 현지인들도 일부러 이곳을 찾는다.

수원 속 작은 차이나타운, 고매로

수원역 대로에 서면 사방에서 각국 언어가 들린다. 수원이 안산 다음으로 경기도 내 체류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 실감난다. 90년대 초부터 공장이 밀집된 수도권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고 수원 역시 이때 타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원은 주변 지역보다 상권과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 안산이나 화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여든다. 주말이면 수원역 주변은 세계인의 만남의 장소가 된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본국을 떠나 이국에 정착하는 것을 단순한 '인구 유입'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사람들이 영위하고 있던 전통과 생활방식, 즉 문화까지 함께 들어와 토착문화 속에 스며든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역이 인천의 차이나타운인데 수원 고매로에도 작은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있다. 매산시장 건너편 젊은이들의 거리, 매산테마상점거리를 지나 새빨간 간판이 보이면 바로 그 골목이 고매로다. 고매로는 고등동과 매산동을 잇는 거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 특히 고등동에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온통 중국어 간판을 단 음식점이 포진되어 있는 고매로를 걸으면 이곳이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곳의 대표 음식은 단연 양꼬치. 중국인들 사이에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정겨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색다른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관광객을 위한 국제자매테마거리

수원 동부에 위치한 인계동은 요즘 핫플레이스다. 수원시청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신도심이 형성되었다. 잘 정돈된 거리와 저마다 특색을 가진 상점들로 강남의 가로수길 못지 않다. 이곳에 수원시는 '국제자매테마거리'를 조성했다. 89년 일본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와 맺은 자매도시협약을 시작으로 수원시는 지금까지 총 16개의 국제도시와 자매 · 우호도시로 결연을 맺었고, 이를 활용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보고자 기획한 것.

16개의 자매 · 우호도시의 연혁을 알려주는 입석조형물이 입구에 세워져 있어 찾기 쉽고, 연을 맺은 도시들에게 받은 조형물을 거리에 전시해 두어 '국제자매테마거리'라는 이름에 명분을 만들었다. 중국 지난시의 '샘' 조각상, 베트남 하이즈엉성의 특산품 '추 다우 도자기', 캄보이다의 상징 '앙코르 와트 사원' 등 각각의 조형물마다 도시의 특색이 드러난다. 또한 국제자매테마거리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을 비롯, 숙박시설이 많아 외국인들이 체류하며 둘러보기에 편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3人3色 Interview

우리 아이들의 꿈 성장터,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을 찾아주세요~

중국인 곽홍우&한국인 이소연 부부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러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어 선생님으로 만난 아내와 결혼하면서 수원에 정착하게 되었죠. 한국생활을 직접 경험한 이주민으로서 또 다문화 가족으로서 이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고 아내와 함께 다문화 2세들을 위한 다문화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어요.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도서관 운영은 물론 요리를 접목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활동 지도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어요. 한국생활 초기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교육이 전부 여성 위주로 구성되어서 남자인 제가 적응하기 힘들기도 했었고, 임금을 못 받은 적도 있었죠.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 다문화도서관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면 바랄게 없을 것 같네요."

樂

중국식 전통정원이 통째로! 효원공원 속 월화원

인계로의 상징, 나혜석 거리 뒤편에 위치한 효원공원은 일반 공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효원공원 내에 조성된 중국 전통정원 '월화원' 때문이다. 2003년 10월 경기도와 광둥성이 체결한 '우호교류 발전에 관한 실행협약'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전통정원을 상대도시에 짓기로 약속했고, 2006년 '월화원'이 문을 열었다. 지역주민에 의하면 중국 노동자들이 직접 입국해서 월화원을 건축했다고 한다.

중국 전통정원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 입구부터 새롭다. 인공폭포와 호수에는 잉어가 노닐고, 처마 끝이 하늘로 향해 있는 중국식 건물이 잘 어우러져 어딜 봐도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하다. 중국의 정원문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한국의 정원도 중국 정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주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정원을 만들고 여가공간으로 활용했던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정원은 자연을 감상하는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주말마다 평화롭게 자연을 감상하고 싶은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월화원은 한국에서 보기 힘든, 색다른 풍경 때문에 드라마 촬영장소로 종종 이용된다. 작년 말 종영한 '달의 연인 : 보보경심 려'의 주요 배경이 이곳 월화원이다. 수원에서 중국의 정원문화를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장소이기 때문인지 한류 드라마의 힘 때문인지 한국 사람은 물론 일본인, 중국인 등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는 중이다.

수원의 자랑이어라! 수원화성&화성행궁

수원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객이라면 특히 수원의 대표적인 한국문화인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안 가볼 수 없다. 수원화성은 정조가 기획하고 조선의 최고 실학자 정약용이 설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다. 백성을 보호하는 읍성의 역할과 전쟁에 대비한 산성의 역할을 모두 갖춘 수원화성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일과 동시에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 수원화성을 지었다고 알려졌지만 백성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살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도시의 위치가 한양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잇는 위치임을 고려하여 전국 상인들이 모여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수원화성에는 애민하는 정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37만 평에 이르는 수원화성을 걸어서 구경하기는 무리다. 수원화성에서는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화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화성어차를 운영한다. 화성어차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화성을 돌아보면 성벽의 견고함에 한 번, 사대문의 위용에 또 한 번 놀란다. 좌석마다 4개 국어 문화해설 오디오를 제공하는데 개인 이어폰을 끼우기만 하면 들을 수 있다. 친절한 문화해설가의 목소리로 화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깊이 알아볼 수 있으니 화성어차는 꼭 한번 타 보기를 추천한다. 화성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찾아갈 때마다 머물렀던 곳인데 현재 남아있는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경복궁만큼 화려하진 않으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하루 몇 번 행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호기심에 찬 눈으로 둘러보며 감탄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마음 한켠에서 뿌듯함이 슬그머니 차오른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9월 수원화성문화제를 개최하며 수원을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고 있다.

3人3色 Interview

아름다운 화성행궁을 친구들에게 추천할래요!

독일인 크리스티나&프랭크

"독일에서 온 대학생 크리스티나입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여행 왔죠. 홍콩, 대만, 일본 등 다양한 아시아권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이드 북에서 수원화성을 추천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오게 되었죠. 화성행궁을 천천히 돌아보았는데,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느꼈어요.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나 창덕궁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곳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 돌아가면 친구들에게 수원화성에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하려고요."

Jingsin

비 오는 날, 양반이 신던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징신

VS

Rain boots

비를 기다리게 하는 장화, 어떻게 탄생 했을까?

태양의 계절이면서 비의 계절이기도 한, 한국의 여름. 우산과 우비, 거기에 장화까지 있다면 한국의 장마철도 두렵지 않은데 과거에도 장화처럼 발을 지켜주는 신발이 있었으니 바로 '징신'이다. 징신은 생가죽을 한 달 정도 기름에 절여 여러 겹을 겹쳐 만들었다. 바닥은 원형돌기로 만들어진 징을 박아 신발의 내구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진흙이 달라붙는 것도 방지했다. '징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축구화의 '스터드'를 연상시키는 징이 박힌 독특한 밑창의 모양 때문이다. 고급 재료인 가죽과 아름다운 외형에 걸맞게 징신은 상류계층인 양반이 신었다. 기름을 머금은 가죽의 색,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박음질에서 현대의 고무장화보다 섬세한 아름다움이 느껴져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아쉽게도 고무신의 등장으로 징신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비록 징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징신을 신고 빗속을 걸었을 선비의 한적한 정취만큼은 현대에도 쭉 이어졌으면 한다.

비 오는 날은 물론 맑은 날에도 장화를 신는 멋쟁이들 덕에 장화를 신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장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고무장화의 시초는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독일의 헤센부츠를 변형해 신고 다니면서 큰 유행이 됐고 그 부츠를 웰링턴 부츠(Wellington boot)라고 불렀다. 튼튼한 웰링턴 부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업가 '헨리 리 노리스'는 현재 형태와 유사한 고무 장화를 만들었고 1차 세계대전, 진흙 속에서 혹독한 전투를 하던 영국군에게 약 200만 켤레의 고무장화를 납품 한 것을 계기로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전장을 누비던 고무장화는 현대에 와선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서 기능화 이상의 신발이 되었고 자칫 칙칙할 수 있는 비 오는 거리의 분위기를 한층 밝혀주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요? 놀면서 일하고 수다 떨 듯 회의합니다”

국적은 달라도 꿈은 같아, 조계연 대표와 매니저 마일스

글 **이지은** 사진 **이영균**

우리는 나라는 달라도 같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인 조계연, 미국인 마일스입니다. ‘트리프렌드’는 현지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여행친구로 이어주는 서비스 회사로 우리가 한국에서 국경을 뛰어넘은 우정을 쌓았듯 세계인 모두가 친구가 되어 놀고 여행하는 즐거움을 맛봤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중에 각자 결혼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들이 우리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에서 사업파트너, 그리고 가족으로까지 발전하는 재미있는 사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처럼 즐기며 일하고 있겠습니다.

I am Cho Gye-yun, Korean, and he is Miles, American, and we live in different countries but are heading towards the same goal. 'TriPriend' together. TriPriend is a service company that connects local people with foreign tourists as traveling buddies and our company aims to mak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befriend one another and enjoy fun times through traveling as we have formed a great friendship in Korea beyond borders. Maybe when we are married to someone we love and have children after some time, our children will call us uncle. Then our relationship may develop into a family from friends and business partners. We will have fun running this company until that day comes.

They are...

한국 청년 조계연, 미국 청년 마일스.
지구 반대편 두 사람의 삶이 겹치게 된 것은
마일스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오면서부터다.
도전하기를 즐기는 ‘서부 개척자 계연’
점잖고 배려심 깊은 ‘선비 마일스’는
오히려 달라서 더 잘 맞았다.
이제는 학교생활을 잠시 미뤄두고
사업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학교 안,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밤을 새며 아이디어 연구를 하고
“그거 해서 돈이나 벌 수 있겠어?” 라는
말들을 함께 견뎌내고 있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간단한 자기 소개부탁 드립니다

계연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과 여행자를 여행친구로 묶어주는 플랫폼 '트리프렌드'의 대표 조계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일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일스입니다. 3년 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계연이와는 학교에서 만난 인연으로 사업까지 함께하게 됐어요. 지금 '트리프렌드'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고 외국인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트리프렌드'는 어떤 일을 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계연 유학을 마치고 혼자서 해외여행을 했는데 스페인에서 한화 7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유로를 소매치기 당했어요. 말도 안 통하고 현금 전부를 잃고 나니 불안증세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엔 가지도 못했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상태에서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아까운 날을 보냈는데 프랑스에서 현지인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와 함께 다니며 진짜 여행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친구의 단골 빵집에서 먹은 크루아상은 아주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죠. 그때 생각한 거에요. 세상 모든 여행자에게 이런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요.

마일스가 함께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마일스 저는 가끔 한국 친구들이 '선비'라고 놀릴 정도로 과묵하고 점잖은 편이에요. 그런 제 입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바로 맛있는 곱창과 소주에요. 계연은 그걸 잘 알고 있죠. 일부러 제가 알딸딸하게 취했을 때 같이 일을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이런걸 보면 계연이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게 분명해요. (웃음) 뭐 과정이야 어찌됐든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일의 취지에도 공감을 하고 무엇보다, 재미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적은 없나요?

계연 파트너 이전에 친구니까 갈등보단 웃음이 많지만 룰이 있다면 서로 영어 이름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쓰는 거에요.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평소부터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죠. 마일스가 한국문화를 잘 알아 오해가 생길 일이 없는 것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요.

마일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이 없었어요. 계연이가 결정을 잘 하는 데다가 이야기도 잘 통하니까요. 만약에 앞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별 다른 걱정도 안해요. 예상외로 해결이 안되는 큰 다툼이 생긴다면요? 그러면 그땐 같이 곱창에 소주 한 잔 해야죠 뭐. (웃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연 결국엔 자신감이에요. 한국인 대부분이 외국인과 친해지고 싶어도 발음이랑 문법 고민하다가 결국엔 말 한마디 못 걸어요. 저 역시 그랬어요. 의경 복무 중 함께 순찰을 돌던 외국인에게 "How is Korea?"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4시간이 넘는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질문을 듣고 어찌나 반가워하며 답변을 해주던지 고민한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자신감만 있다면 오히려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쉬워요. 서툴러도 한국말을 하려고 애쓰는 외국인을 보면 신기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외국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일스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마일스 저는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시니어 센터에서 영어 회화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옛 모습을 알게 되었고 매력을 느낀 거죠. 수업이 끝난 후에 차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에는 삼국시대, 궁궐, 절 등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적지를 방문해 함께 식사할 때면 한적한 분위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져요.

마일스가 겪은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마일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했을 때,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류를 구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어요. 다행히도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고 지금은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이나 다른 질문사항이 생겨도 저 혼자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익숙해지기도 했고 영어를 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수월해졌죠.

미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떠한가요?

계연 저도 많이 긴장했었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건데 그 누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갔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별거 없었어요. 은행 창구처럼 되어 있는데 가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되는 구조였거든요. 답변 준비를 잘 해가야 하는 건 아실 테니 그 외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휴대폰을 모두 수거해가니까 안에서 읽을 책을 하나 챙겨가세요.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기타 절차가 많아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든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계연 지금처럼 꾸준히 인연을 이어나갔으면 해요. 동료로서 친구로서 마일스는 존재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되거든요. 저보다 어린데도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한국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마일스는 미국에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거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지 두고 봐야죠. (웃음)

마일스 그 동안 일을 하면서 그룹여행과 모임을 진행해 왔는데요. 진행자인 제가 더 즐겼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회사가 더 커진다면 아무래도 그땐 모임을 대하는 제 태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거에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끼리의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도 함께 즐기고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풍경도 엿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두 사람이 추천하는 여행 장소
사계절 언제나 걷고 싶은 곳,
석촌호수공원 (Seokchon Lake Park)

출처 : 송파구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는 도심 속에서 쉽게 자연의 경관을 즐길 수 있어 서울의 대표적인 데이트 코스, 나들이 코스로 사랑받고 있다. 크게 서호와 동호로 나뉘는데 정적인 분위기의 동호와는 달리 서호 쪽에는 주말마다 송파산대놀이를 비롯한 민속무용 · 사물놀이 · 탈춤 등의 민속공연이 펼쳐져 볼거리가 많고 봄에는 벚꽃축제, 여름에는 피서 콘서트, 가을 낙엽축제, 겨울 야경까지 사계절 내내 즐길 거리가 있어 언제 가도 지루하지 않다.

똑똑, 방 보러 왔어요~

한 지붕 지구촌 사람들의 각양각색 집 구하기

영어 강사로 한국에 오게 된 제이슨 씨. 고향인 호주와는 달리 한국의 집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며 화장실은 건식이 아닌 배수구가 있는 습식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놀라지 않았지만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문화 때문에 의외의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데요. 바로 '전세'와 '반전세' 문화입니다. 이렇듯 '집'은 사람이 쉴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라는 데에선 같지만 나라마다 형태로 다르고 제도도 다른데요. 나라별 부동산 문화, 공존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Jason coming to Korea as an English teacher. Since he was aware of that he had to take off his shoes before entering houses in Korea and the houses have wet type bathrooms with the drain, not dry type, unlike houses in Australia, he was not surprised by such culture but he got to face unpredicted difficulties due to strange real-estate culture in Korea which was about 'chartered house' and 'half-chartered house'. 'House' is a cozy place for people to rest in for both countries but it is different in form and system in each country. Shall we find out about real-estate culture and coexistence in each country?

정리 **이지은**

스마트하게 집 구하는 법 '전세', '반전세'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부동산 문화로 일정액(보통 매매가에 40~80%)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긴 후 집을 대여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매달 얼마간의 임대료를 내는 월세와 달리 한번에 큰 돈을 내야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반전세'는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근래에 생긴 문화로 오른 만큼의 차액을 환산해 월세를 받는 것이다.

한국의 월세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를 내며 사는 것으로 보증금이 높을수록 월세가 싸진다. 계약할 때 집주인과 잘 상의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할 수도 있다. 월세 외에 매달 따로 지불해야 하는 관리비 안에는 수도세 등 공과금이 포함돼있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집을 구하며 부동산에서 받는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x100)으로 계산한 값의 0.4%가 최대 중개수수료가 되고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청구한다. 문제가 생길 시 정부가 보증금액의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외국인도 해당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잔금일 기준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고 여권,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로 가면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집을 빌려줘서 고마워요 일본의 '레이킹 문화'

일본에는 '레이킹(れいきん)'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부동산 문화가 있다. 레이킹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주는 사례금으로, 과거 관동대지진 이후 많은 집이 불타 없어져 주택난이 생기자 살 곳을 빌려준 집주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사례금을 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불한 것이라 나중에 계약이 끝나더라도 다시 돌려 받을 수는 없다. 레이킹은 보통 월세의 3~5개월 분을 지급하지만 '사례금'으로 시작된 그 특성상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일본은 보증금, 부동산중개비, 주인에 따라 2개월치 월세를 선불로 받는 등 이사를 한번 하려면 집세의 6배 정도 초기비용이 들어, 이사를 자주 다니면 거지가 된다는 뜻에서 '이사가면 거지(引越し貧乏)'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집과 세대간의 가치를 나누는 프랑스의 '코로카시옹'

프랑스에서는 '코로카시옹'이라고 불리는 노인과 청년, 두 세대가 집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있다. '두 세대가 함께' 라는 프랑스 협회의 주선 아래 독거노인과 살 곳이 필요한 청년을 연결해주어 하우스 메이트를 만들어 주는 제도로 이들은 입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집주인인 노인과 세입자인 청년간의 합의점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보통 방세는 없지만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일정 금액의 방세를 내면서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것, 방세를 받되 조건이 없이 사는 것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작성 된다. 양측의 만족도가 높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본 따 한국에서도 어르신과 학생간에 룸 셰어링 사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요즘 세계 어느 나라나 젊은 세대의 주택문제와 고독한 노인문제가 이슈이다. 문화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세대간의 단절도 큰 문제인데 프랑스의 '코로카시옹'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줄만한 신 주거문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이사하는 날이 따로 있다?

한국 달력을 유심히 보면 '손 없는 날' 혹은 '이삿날'이라고 표시 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손 없는 날은 한국의 전통 민속신앙의 하나로 '손'='악귀'가 없는 날을 뜻한다. 한국에서 '손 없는 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귀가 돌아 다니지 않는 길한 날로 이사나 결혼 등 주요 행사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With i-PreChecking system, we ensure national security

테러와 전쟁을 벌이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액션 영화는 극장가의 인기 있는 장르다.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눈을 뗄 수 없게 하지만 사실 관객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있다. 결국 주인공이 이기고 평화가 찾아 올 것이라는 것을. 현실에선 어떨까? 영웅의 희생만으로 안전을 확보 할 수 있을까? 현실은 영화 같지않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웃사촌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적절한 울타리가 필요하듯 지구촌 시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위하여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도입되었다.

Action movies where main characters struggle for national security by fighting against terrorism are popular these days. Even though audiences can't take their eyes off them, they already know how these movies will end. At the end, the main characters win and peace come. Then, what about reality? Can we protect national security only at sacrifice of a hero or heroine? The reality is quite different from the movies. Therefore, laws and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prepare ourselves beforehand. As we need appropriate fences around our homes to live harmoniously with our neighbors, "i-PreChecking system" was introduced to create an atmosphere where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can live harmoniously in this global era.

정리 **편집실** 자료 출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뭔가요?

요즘 들리는 외국 발 테러 사건 소식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이라도 방심할 수 없게 한다. 이에 법무부(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항공기 테러 방지 등 승객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만들어 '17. 4. 1.부터 전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17년 6월 현재 전 세계 43개국 155개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80개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에 적용되고 있다. 확인 과정은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이 탑승권을 발권하기 전 항공사가 승객 정보를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의 하나인 통합국경관리시스템(IBMS)으로 보내면, 통합국경관리시스템은 국제테러범이나 과거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입국규제자, 여권 발급국가에서 인터폴에 등재한 분실여권 소지자 등 보유 중인 여러 정보와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승객의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응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What is i-PreChecking system?

The recent string of terrorist attacks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has alarmed people living in Korea which is relatively safe from terrors up until now. To ensure national security and keep terrors from happening,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widely run i-PreChecking system by which a suspicious foreigner trying to enter Korea is prevented from getting aboard an airplane at an airport of departure from April 1, 2017. As of June 2017, this system is applied to all of Korea-bound flights operated by 80 airlines departing from 155 airports of 43 countries.

The screening process is as follows: Phase 1. An airline transmits passenger data to the KIS via Integrated Border Management System (IBMS) which is one of the information systems run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Phase 2. we check whether international terrorists, persons banned from entry to the ROK due to illegal acts or holders of lost passports reported to INTERPOL (INTERPOL's Stolen and Lost Travel Documents, SLTD) are on the passenger manifest in real time by using IBMS. Phase 3. Then, the KIS notifies the airlines of the results.

제도 시행 후 차단현황, 그것이 궁금하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17. 4. 1.부터지만 사실 법무부에선 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사고를 계기로 탑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해 탑승 전 우범승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제도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 및 항공사 간담회, 아시아나 등 국적항공사와 시스템 연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15. 2. 16.부터 일본 나고야 공항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탑승객 사전확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시범운영 기간('15. 2. 16.~'17. 3. 31.)동안 12,627,230명의 탑승객을 미리 확인하였고 그 결과 입국금지자 193명, 인터폴 분실여권 소지자 214명 등 총 3,380명의 우범자의 탑승을 사전 차단하였으며, 전면 시행 이후 '17. 5. 31.까지 2개월간에 걸쳐 6,157,421명의 탑승객을 미리 확인하여 입국금지자 153명, 인터폴 분실여권 소지자 104명 등 총 2,995명의 탑승을 차단함으로써 항공기와 탑승한 승객의 안전을 크게 강화하였다.

Then, what about its performance?

Although th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from April 1, 2017,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ed to check identities of suspicious passengers prior to their boarding for ensuring safety of passengers and preventing terrorist attacks

after the disappearance of a Malaysia Airlines which occurred in March 2014. Since February 16, 2015 , we had test-operated the system with flag carriers at Nagoya Airport, Japan after formulating plans for introducing the system, having meetings with airlines and connecting our system with the systems of flag carriers including Asiana Airlines. During the test-operation period (February 16, 2015 ~ March 31, 2017), we checked travel documents of 12,627,230 passengers in advance. As a result, we kept 3,380 suspicious passengers including 193 persons under entry ban and 214 persons holding stolen and lost passports reported to INTERPOL (SLTD, INTERPOL's Stolen and Lost Travel Documents) from boarding. Since its full deployment, we had successfully prevented 2,995 suspicious passengers including 153 persons under entry ban and 104 persons holding stolen and lost passports reported to INTERPOL (INTERPOL's SLTD, Stolen and Lost Travel Documents) from boarding by checking travel documents of 6,157,421 passengers over two months. Thanks to the system, we have considerably enhanced aviation safety.

우리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의 전면 시행은 국제테러범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그 지역에 사는 외국인의 기초질서 위법이나 무질서 등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폭되게 되면 외국인 혐오증(제노포비아)과 차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소한 범법행위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테러와 같은 중범죄로 인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선량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탑승자 확인제도가 글로벌 시대 우리 모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For creating an atmosphere where everyone can live safely

We expect that full implementation of "i-PreChecking system" will improve border management and contribute to national security tremendously. Negative perceptions of foreign residential districts originate from foreign residents' violation of basic laws or disorderly behaviors not just in Korea but also anywhere around the globe, which can lead to xenophobia and discrimination. People can have a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committing misdemeanors. The problem becomes even more serious if people get to have bias against a group of foreigners after they hear news about felony committed by few people of the group. The reason is that such bias can threaten the safety and wellbeing of good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We hope "i-PreChecking" system will serve as a fence ensuring safety of all in the global era.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탑승차단 현황
Number of persons denied entry since implementation of i-PreChecking system

(2017년 5월 말 기준 / As of May 2017)

탑승자 사전확인 현황
Number of passengers whose travel documents checked prior to their boarding via i-PreChecking system

	사전확인 건수 Number of processed cases via i-PreChecking system	탑승가능(OK) Eligible to board (OK)	탑승부적격(Not-OK) Ineligible to board (Not-OK)	탑승선별 (Selectee)
시범운영 Test-operation (2015.2~2017.3)	12,627,230	12,623,850	3,380	–
전면시행 Full deployment (2017.4~2017.5)	6,157,421	6,116,534	2,995	37,892
누계 Total	18,784,651	18,740,384	6,375	37,892

유형별 탑승차단 현황 Persons denied boarding by type

	총계 Total	입국규제 Persons under entry ban	인터폴 수배자 Persons on INTERPOL NOTICES	한국무효분실여권 Invalid or stolen ROK passportholders	인터폴 SLTD NTERPOL's SLTD Holders	여권유효기간 초과 Persons holding out-of-date passports	사증 미소지 Persons without visas
시범운영 Test-operation (2015.2~2017.3)	3,380	193	–	1,842	214	739	392
전면시행 Full deployment (2017.4~2017.5)	2,995	153	2	831	104	706	1,199
누계 Total	6,375	346	2	2,673	318	1,445	1,591

※ 인터폴 SLTD: 각국에서 인터폴에 도난 · 분실여권으로 등재한 정보

※ INTERPOL's SLTD database: Details of stolen and lost passports submitted directly to the SLTD NCB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via INTERPOL's I-24/7 secure global police communication system

입국금지 유형별 탑승차단 현황 Persons under entry ban denied boarding by type

	총계 Total	마약 Drug offence	성범죄 Sex offence	살인 · 강도 Murder & Rubbery	폭력 Violent crime	위변조 Forgery	출입국사범 Immigration offence	기타 Others
시범운영 Test-operation (2015.2~2017.3)	193	10	8	4	4	43	93	31
전면시행 Full deployment (2017.4~2017.5)	153	4	9	–	9	31	78	22
누계 Total	346	14	17	4	13	74	171	53

2017. Summer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당신이 모르는 사천출장소 이야기

글 **이지은** 사진 **나우연**

출장소의 막내, 신동욱 반장이 나의 문을 연다. 밤새 머물러있던 적막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내 안으로 들이친다. 1965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삼천포출장소로 출발한 나는 그 동안 소속이 바뀌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기도 하며 2007년부터 이곳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 각산 아래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전에는 항구 근처에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어 좋았지만 크기도 작고 낡아, 꾀죄죄한 차림으로 맞선장소에 나간 사람처럼 쑥스러웠다. 외국인이 처음 만나는 한국의 관공서라 좋은 인상을 보이고 싶었고 본의 아니게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다행히도 10년 전 청사를 옮기면서 몸집도 커지고 시설도 좋아져 한시름 덜었다.

내 관할구역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으로 관내 체류외국인은 5천여 명 정도 된다. 바다가 있는 특성상 선원의 방문이 많은데 배가 들어오면 일거리가 밀물처럼 밀려와 출장소도 요동치는 느낌이다. 사천출장소 식구들의 노련한 일 처리로 금방 안정되긴 하지만. 내가 관찰한 바, 직원이 4명뿐이라 그런지 협동심이 남다르고 가족처럼 지낸다. 지난 1월에 부임한 박정호 소장은 종종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쌓이는 정이 있다.
우리가 민원인을 생각하듯
민원인이 우리를
생각해주는 걸 느낄 때
마음 한 구석이 포근해진다.

손수 밥을 지어 매운탕이며 김치찌개를 끓여 주곤 하는데 출장소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소복하게 담아 식탁이 더 풍성해 보인다. 한 상에 둘러앉고 나면 소소한 대화는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 대처, 효율적인 업무 방법이 집안 비법 전수되듯 전수된다. 이제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으니 거침없이 업무에 뛰어들 테지. 바닷가에 있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식구들의 땀방울에서 짭짤한 바다내음을 맡는다.

점심을 먹고 정신 없이 일하다 보면 몸이 찌뿌드드해진다. 이 시간이 되면 나조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이일녀 계장이 굳은 어깨를 만지니 선원 대리로 출장소에 자주 방문하는 선주 아주머니가 "앉아서만 일 하니까 힘들지예? 제가 테레비에서 봤는데 사무직 직원들은 이런 스트레칭을 하면 좋타카데요." 하며 몸소 시범을 보인다. 출장소는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며 일을 해서 화기애애한 편이다. 민원인들 사이에서 '서울총각'으로 불리는 신동욱 반장도 "어머니, 양파 보관은 어떻게 해요?" 라며 살림 질문을 할 정도니까. 하지만 친근해서 더 힘든 점도 있다. 나와 이웃해 있는 문화회관을 통해 들은 말인데 신동욱 반장이 음악회를 보러 갔다가 안면이 있는 민원인을 만나는 바람에 그곳에서도 상담해줬다는 거다. 친근하게 지내는 만큼 업무와 일상의 경계가 흐려질 때가 있어 가끔은 난감하다. 직원이 4명이라는 것도 그렇다. 적은 인원이라 끈끈하게 뭉칠 수 있지만 누군가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게 되면 남은 인원이 힘들어진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싶을 정도다.

단속업무를하던 젊은 시절의
카리스마 대신 사천출장소에서
직원의 민원업무를 도우며
친근한 웃음을 가지게 됐지만
든든한 건 여전하다.

오후 6시, 어느새 근무시간이 끝나고 해도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한다. 그래도 하늘은 문을 닫는 법이 없다. 해가 비운 자리를 별과 달이 채우고 있다. 이곳도 마찬가지다. 가끔 야간에 경찰서에서 불법체류자 신병인계 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몇 시든 출동한다. 이송되는 사람 대부분이 격양돼있는 상태라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긴장되는 일이다. 이때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돈 많이 벌었어요?"같은 농담 섞인 말을 걸어가며 감정을 잘 달래줘야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천에서 창원까지 야간 신병인계를 하고 온 날이면 식구들 눈에는 다음날 아침까지도 까무룩한 밤이 깔려있는 듯하다.

박정호 소장이 화단에 물을 주러 나왔다. 지난 봄엔 튤립이며 팬지가 만발했는데 지금은 꽃이 지고 귀여운 복수박과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중이다. 출입국 공직에 오래 몸담고 있던 그는 관공서가 민원인에게 주는 긴장감에 대해 잘 안다. 그는 출장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 화단에 핀 꽃이 긴장한 민원인의 마음을 풀어주길 바란다. 이런 따뜻함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발령받은 직원들이 다시 발걸음을 하는 걸 거다. "막상 떠나니 그립더라."는 그들의 한결같은 말에 강칠구 계장, 일명 '세븐나인' 계장은 "그럼, 나처럼 다시 와서 근무해."라며 너스레를 떤다. 한겨울 선박 검색을 하러 나가면 손이 꽁꽁 얼어버리는 이곳이 뭐가 좋다고 다시 온 건지, 혀를 끌끌 차면서도 나는 슬쩍 웃음이 난다. 경상도 끝자락, 직원이 달랑 4명인 출장소. 그래서 이곳이 더 즐겁다는 것을 나도 잘 아니까.

Hip한 혼족 트렌드

"나 오늘 '혼밥' 했어~"

요즘 대한민국은 '혼자서 000하기' 열풍입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부모와 독립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보편적인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족'의 생활을 지칭하는 한국말도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한국사람 다 됐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꼭 알아두세요!

글 김경주

혼자 술 먹는 게 어때서?
혼술 〔HONSUL〕

'혼술'이라는 말, 어떤 뜻일지 짐작 가시나요? '혼술'은 '혼'자 마시는 '술'을 줄인 말입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를 잠시 뒤로하고 나 혼자, 마음 편히 술 한잔 기울이는 일이 한국사람들에게 힐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요.

Từ "Honsul", bạn có đoán ra được nó có nghĩa là gì không? "Honsul" là từ viết tắt "Rượu (Sul)" uống "Một mình (Hon)". Trong thời gian qua, tại Hàn Quốc uống rượu một mình không phải là một việc phổ biến. Nhưng từ lúc nào đó những người uống rượu một mình ngày càng tăng lên. Liệu việc bỏ lại cuộc sống phức tạp sau lưng và một mình uống một ly rượu có đang trở thành một cách chữa lành (healing) dành cho những con người Hàn Quốc không?

Dialogue

오늘 술 한잔 할래?

Hôm nay làm một ly rượu nhé?

다음에 같이 마시자. 오늘은 집에서 혼술하려고.

Lần sau uống đi. Hôm nay tui định Honsul (uống rượu một mình) ở nhà,

혼자서도 잘 먹어요!
혼밥 〔HONBAB : 独食〕

'혼술'을 배웠으니, '혼밥'의 뜻도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혼밥'은 '혼'자 먹는 '밥'을 줄인 말입니다. '혼밥'을 트렌드로 여기는 한국인의 태도가 외국인 여러분에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한국사람들에게 '혼밥'은 꽤나 큰 변화입니다. 이젠 외국인 여러분들도 한국사람에게 당당히 말하세요! "나 혼밥했어~"

学过'毒酒'，'独食'的意识大家应该能推测。'独食'就是独自一个人吃饭。韩国人将'独食'当做一种流行的态度，也许外国人看起来会比较奇怪。但对于比较在意别人的实现的韩国人来讲，'独食'是个比较大的变化。现在外国朋友们也可以在韩国人面前堂堂正正的说："我今天独食！"

Dialogue

요즘 식당에 들어가면 혼밥하는 한국인이 많아졌더라.

最近去餐厅独食的韩国人多起来了。

'혼밥'이란 말도 알아? Steve 한국사람 다 됐네.

你知道'独食'是什么意义？Steve，你都成了韩国人

'혼족'들의 소비문화가 형성되다
1코노미 〔1CONOMY〕

'혼술, 혼밥, 혼영(혼자 영화보기), 혼행(혼자 여행가기)'의 유행은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한국사회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는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 '더 큰 자유와 만족'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미래보다 현재를 즐기자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에 발맞춰 많은 업계에서는 1인 소비층을 겨냥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죠.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1인+Economy(경제)를 합쳐 '1코노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코노미'에 빠진 한국 사회, 외국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ingle-person-drinking, single-person-eating, single-person-movieing, and single-person-traveling being in fashion can be regarded as an index showing Korean society where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re increasing. And 'single' now indicates 'bigger freedom and satisfaction' rather than implies loneness. Young people that pursue enjoying the present rather than enjoying future started to consume for their own satisfaction more than the older generation do for theirs and, according to such trend, a lot of companies start presenting products targeting single-person consumers. And trend experts have combined single person and economy and named such trend as '1-conomy'. What are foreigners' opinions on Korean society fallen into '1-conomy' trend?

Dialogue

편의점 도시락 먹어 봤어? 생각보다 맛있더라

Have you tried lunch boxes from convenient stores? They are better than I expected them to be.

요즘 혼족을 위한 음식이 대세잖아~ '1코노미'라고 못 들어봤니?

So foods designed for single-person are getting popular nowadays. Haven't you heard '1-conomy'?

이제는 한국인이 된
후르시드(Khurshid)씨 이야기

여전히 꿈꾼다 처음 입국했던 그때처럼

이국적인 가게가 즐비한 이태원 우사단로 한 켠에 '할랄미트'를 파는 정육점이 자리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의 총칭으로 종교적 율법이 기준이 된다.

주인인 후르시드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 그는 다문화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인 17년 전 한국에 IT공부를 하기 위해 온 학생이었다. 졸업 후 한국에 정착을 한 '우즈벡 청년'은 이제는 귀화를 하고 세 아이의 아빠까지 됐다. 그는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힘이 '배움'에 있다고 했다. 간혹 배움보다 판단과 불만이 앞선 외국인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입만 연다면 미래를 볼 수 없다. 그것은 한국인도 마찬가지다. 할랄과 IS를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색안경을 빼고 보면 할랄은 식재료로써 주목할만하다. 세계적으로 시장도 커지고 있고 실제로 무슬림이 아닌 손님의 비중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강원도에 목장을 만들어 사업을 확장하고 동해바다를 만끽하며 사는 꿈을 꾼다. 라마단 기간이라 배가 텅 비어있을 텐데 꿈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목소리엔 청량한 힘이 실려있었다. 내륙국가인 우즈베키스탄엔 바다가 없다. 한국의 푸른 바다는 그의 마음을 흠뻑 적셔 놓았다. 조선의 청화백자는 이슬람에서 들여온 고가의 회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순백의 도자기와 코발트 블루는 서로를 돋보이게 했고 역사에 남는 유물로 자리 잡았다. 조화란 그런 것이다. 이국의 염료가 조선의 푸른 빛을 표현했듯 후르시드 씨의 미래에도 한국의 푸른 바다가 넘실대고 있다.

맛과 문화의 전도사
이쿠코(Ikuko)씨 이야기

밀가루 한 컵과 한국 · 일본 한 스푼

일본 오키나와에서 온 이쿠코 씨는 유치원에서 일본 음식과 문화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한국생활 17년 차로 접어든 만큼 한국어에 능숙하지만 결혼 후 처음 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랐다. 차라리 눈에 띄게 다르다면 주변에서 이해해줬을 텐데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로 인해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일쑤였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알림장을 받아오면서 그녀의 집에선 '가갸거교' 배우는 모녀의 목소리가 사이 좋게 흘러나왔다. 종이 위에 'ㄱ'으로 담근 김치를 올리고 'ㄴ'으로 만든 나베를 담던 그녀의 배움은 실제 한식, 아동요리로 까지 이어졌다. 열려라! 참깨를 수없이 외쳤지만 이국적인 억양 탓일까? 많은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다문화 여성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 팀 '다울림'을 통해 요리강사가 됐다.

편식은 좋지 않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어릴 때부터 많은 문화를 경험해야 편견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코노미야끼'는 그녀가 추천하는 음식이다. 좋아하는 것을 구워 먹는다는 뜻의 이 요리는 원하는 것은 뭐든 넣어 만들 수 있다. 원래부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퓨전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 어울림이 당연시 된다면 그녀의 바람처럼 '다문화'가 낡은 단어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오코노미야끼를 만들어 먹으며 선생님의 나라 일본도 함께 맛본다. 그리고 그것을 양분으로 더 큰 나무로 자라난다.

우연이 인연으로
존 프랭클(John M. Frankl)씨 이야기

끌림이 있은 뒤에 이유가 생겼노라

연세대학교에서 작가 '이상'의 문학을 열강 하는 외국인 교수, 한국에 주짓수를 전파시킨 벽안의 사부,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막걸리를 예찬하는 미국사람. 존 프랭클 교수의 활동은 한국인이 오해하기 딱 좋은 모양새다. 뼛속부터 한국 사랑을 외치는 외국인으로 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최루탄'이었다는 뜻 밖의 대답을 듣노라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는 88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교환학생으로 왔고 그때만 해도 한국과의 인연은 최루탄 연기처럼 사그라질 거라 생각했다. 미국에 살며 법조계에 몸담고 싶었기에 한국은 그의 미래에 없었다. 하지만 인연은 우연처럼 반복됐고 지금에 이르렀다. 회포를 풀듯 출입국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그의 모습에서 한국과 존, 둘은 이유가 필요 없는 사이처럼 느껴진다. 호기심이 가는 이력이라 한국인은 그에게 질문 공세를 하곤 한다. 그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눈엔 특별한 이유를 듣고 싶어하는 어린 연인 같은 욕심도 묻어있다. 그러면 그는 덤덤하게 대답한다. '그냥 끌림이 있었을 뿐 나중에 이유가 생겼다.'고 모든 사랑이 그러하듯.

그가 가양주를 배운 것도 원래 술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혀의 색이 한가지이듯 '맛있는 것'은 통하기 마련이다. 그는 막걸리를 소개할 때 굳이 글로벌의 옷을 입히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맛 보라며 그가 건넨 술잔에는 취한 꽃의 낭창거리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 술잔에 뿌리내린 꽃처럼 자연스러운 향과 단맛을 내는 것이 그와 닮았다. 우연한,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던 그 삶의 모습에서.

명함부자 열정부자
마르하보(Marhabo)씨 이야기

태양을 견디고 익어가는 석류처럼

한국의 강원도와 닮았다는 '나망간'에서 태어난 마르하보 씨. 그녀는 어릴 때부터 요리하기를 즐겼다. 한국과의 첫 만남도 고사리 손으로 채 썬 당근과 식초, 고춧가루를 무치던 손끝에서 시작됐다. 이제는 '카레이스키 살라타(고려인 샐러드)' 대신 배추김치를 즐기고 있으니 인연이 재미있다. 한국생활 10년 차로 결혼이민을 왔지만 이혼 후에도 계속 살고 있는 건 두 아이 때문이다. 외국인이면서 싱글맘이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그녀는 낙담하지 않는다. '마르하보'는 그녀의 모국어로 환영을 뜻한다. 시련도 받아드리는 그녀의 의연함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이리라.

우즈베키스탄에선 요리가 태양에서 시작된다. 해의 뜨거운 손길은 과일을 더 크고 달콤하게 만들고 향신료의 매콤한 감각을 극대화한다. 그곳의 태양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직장을 다니며 다문화 강사, 인천남부경찰서에서 통역까지 하는 그녀의 열정이 다홍빛 원피스와 어우러져 잘 익은 석류를 연상케 한다. 알알이 여무는 붉은 꿈 중엔 다문화기관에서의 이민자 채용이 늘었으면 하는 꿈도 있다. 특히 요직에 있는 이민자가 없어 정책의 현장감이 떨어져 아쉬울 때가 많다. 국경 없이 잘 익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새로운 식재료가 식탁에 주는 신선한 활력과 같다. 요즘 그녀의 두 아이도 엄마를 닮아 정수리 가득 여름 볕을 담아온다. 아이도 여무는 중이겠지. 훗날 너무 따가운 햇볕에 그을려 왔을 때 그늘을 드리워줄 엄마 나무가 되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꿈 한 줄기, 이력 한 줄기를 키운다.

한국살이 물음표? 1345로 느낌표!

**모든 게 낯설어서 엄마 품을 떠난
아이처럼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기도 한 타국에서의 삶.
누군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절실할 때 당신의 손을 잡아줄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든든한 벗
1345센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이지은** 사진 **나우연**

마음으로 뛰어다니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이하 1345센터)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사무소에서 전화 상담실을 개시한 것으로 그 첫 발을 내디뎠다. 당시 6명으로 구성됐던 아담한 상담실은 2017년 현재, 20명의 외국인 상담사를 포함해 총 99명의 든든한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는 센터로 성장했다. 늘어난 것은 단지 인원 만이 아니다.

1345센터는 언어의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한외국인을 위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3자 통역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17개 공공기관에서 통역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역시 통역을 지원한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인상 깊었던 상담 에피소드가 있는지 물었다. 극적인 이야깃거리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일한다는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이야기가 오히려 긴 여운을 남겼다. 그들의 대답에는 1345센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 말이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무장한 법률지식, 민원인의 고충에 눈물짓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1345센터 식구들. 그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1345센터가 더욱 성장하길 응원해본다.

유명희 매니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국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센터의 목표라고 했다. 물론 지금도 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편의 안내, 3자 통역서비스까지 하고 있지만 상담원 한 명이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 기대만큼 생활상담을 해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유명희 매니저의 바람처럼 체류 외국인이 200만까지 늘어난 만큼 센터도 더욱 커지고 활성화돼서 재한외국인에게 법률 안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1345센터가 됐으면 한다.

Mini Interview

"사소한 고민이라도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천지혜 부팀장

상담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를 그냥 넘겼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는데요.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신분이라면 변동이 생길 때마다 저희 1345를 통해 미리 체크를 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본인, 또 주변 한국인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의외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정말 꼼꼼하신 분은 핸드폰 번호 바뀐 것도 알려줘야 하냐는 문의를 하기도 해요. 이것처럼 아주 사소한 궁금증도 좋으니 언제든지 저희 1345센터에 전화를 해 미리미리 점검해주세요.

"이민자라 더욱 잘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이진주 상담원

저는 베트남어와 한국어 상담을 맡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외국인 상담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어 무리 없이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 발음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민자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아 상담을 더 잘해드릴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무시하던 민원인이 상담이 끝난 후에 고맙다며 마음을 여시고 앞으로도 상담을 해줬으면 한다는 인사를 해주실 땐 편견의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아 많이 뿌듯합니다. 민원인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문제도 고민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 분의 외국인등록증에 체류자격이 F6라고 적혀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채용해도 되는 건가요?

A F6 자격의 경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이므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출입국에 따로 신고 절차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Q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에 딸아이를 낳았는데 지금은 한국국적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복수국적이 가능할까요?

A 선천적인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과 함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복수국적이 가능하십니다. 단,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해 주셔야 하고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신고, 만 15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Q 저희 학원에 근무하려고 외국인이 입국했는데 외국인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소지 혹은 근무처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Q 제가 이사를 했는데 주소지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A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전입한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혹은 거소신고증) 체류지 주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공간을 초월한 열정이 있는 곳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만든 영화는 볼거린 많지만 이상하게 애정이 가지 않는다. 반면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담아 만든 영화는 감탄과 함께 애정을 불러 일으킨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영화라면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한 지붕 두 살림이라는 핸디캡이 있기에 더욱 큰 눈과 큰 귀를 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입소문 내지 않고는 못 배길 테니까.

글 이지은 사진 나우연

작아도 누구보다 크게 일하는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의 수도 서울, 조금만 번화한 곳에 나가면 금발의 백인은 물론 히잡을 쓴 이슬람 여인과 꽁꽁 땋은 머리가 인상적인 흑인까지 다양한 인종을 볼 수 있어, 서울 안에 작은 지구촌이 형성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거기에 2007년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작되면서 중국동포의 국내체류가 급속도로 늘어 70년대 한국인이 '아메리칸드림'을 가슴에 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듯 '코리안드림'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의 숫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남부사무소)는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2013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에서 분리, 신설되어 외국인에게는 기회의 발판을 제시하는 조력자로, 내국인에게는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는 중재자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관할구역은 서대문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울특별시의 7개구를 포함, 경기도 광명시까지로 관할지역 내에 중국동포의 비율이 많아 중국인 전담 층을 만들어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 이민자 대표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져 정확한 정보전달 및 계도활동을 하는 등 모든 업무에 앞장서고 있어 든든한 한국의 수문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설된 이후에도 '서울사무소'와 아직 같은 건물을 쓰는 공동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물을 나눠 쓰다 보니 방문 민원인이 이 사실을 모른다면 본인의 관할사무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 가서 기다리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작은 규모에도 전국 출입국사무소 중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을 관리하고 있어 여러 고충이 있지만 외국인의 안전한 정착을 돕는 각종 체류허가 업무를 일일 평균 1천여 건씩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5월을 기준으로 총 1,113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였다. 출입국사범처리와 관련해서는 4천 3백여 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이중 702명을 강제출국 조치하였다고 하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을 몸소 알리고 있는 셈이다. 다행인 것은 현재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지구에 신청사 건립 추진 중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복지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까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서울남부사무소의 진짜 독립이 기대된다.

역지사지,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서울남부사무소는 하루 2천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신속한 업무처리에 힘쓰고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다. 쉬운 길에 안주하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2017년 인권보호 최우수 출입국관리기관 표창까지 수상했다. 서류보완절차에 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높였고 그에 대한 안내문자까지 발송해주는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나아가 사무소를 8시 반에 조기개방하여 30분 먼저 민원인과 하루를 시작하는 등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배려의 온도가 피부에 와 닿는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외부 민원인뿐만 아니라 내부의 직원들에게도 향해있다. 직원을 내부고객이라 칭하며 그들이 편안해하고 출근하고 싶어하는 곳으로 사무소를 꾸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박상훈 소장의 말에서 나보다 상대를 살피는 서울남부사무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햇빛 한 점 들지 않고 바람 하나 쉬었다가 가지 않는다면 그 집은 의미가 없다. 이게 항상 시끌벅적한 사무소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남부사무소'의 씬스틸러,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단

씬스틸러(scene stealer)는 직역하자면 장면을 훔치는 사람으로 주연 못지않은 연기력이나 개성으로 영화를 빛내는 조연을 지칭하는 말이다. 서울남부사무소에도 이러한 씬스틸러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단'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형광조끼를 입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바쁜

직원의 숨통을 틔워주어 이제는 서울남부사무소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원이 먼저 S.O.S 전화를 걸어 도움 요청을 할 때도 있다니 인터뷰하는 동안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는 직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들은 봉사 외에도 이민자나 한국 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연배우의 역량이 저평가 받듯, 안타깝게도 이들의 활동은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민원봉사할 때만 해도 "외국인 말고 한국인과 이야기하겠다."며 무시하는 말을 듣곤 하는데 이들이 이민자여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 한국의 많은 이민자들은 단역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다. 영화의 반전은 늘 즐겁고, 관객은 계란이 바위를 깨트릴 때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주인공보단 조연의 삶에 더 가깝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단역에서 명품조연, 나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까지 '이민자네트워크 자원봉사단'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한다.

Mini Interview

봉사하는 이유요? 아름다운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죠~

다키 유카리(일본), 응티후잉레(베트남계 한국인)

저희는 민원 통역과 방문예약서비스를 도와주고 이민자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민원 봉사활동은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저희끼리의 만남의 장 역할도 해줘서 다들 즐기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 때문에 못나오더라도 시간이 생기면 다들 다시 돌아와 봉사활동을 하곤 해요. 민원인으로 방문하셨다가 봉사자가 되신 분도 있고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봉사활동을 시작한 분도 있을 정도에요. 워낙 바빠 힘들 때도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거에요. 모두가 행복한 서울남부사무소가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업무에 임할 때 법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의 편의보다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가장 정의로운 중심점 찾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게 제 목표입니다."

사범과 보호실 **최아람** 반장

"동고동락한 단속팀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달라져도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하고 저희 단속팀이 목소리만 큰 자에게 시선을 뺏기기보단 작은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로 활동했으면 합니다."

조사과 **장종성** 반장

"서울남부사무소는 제가 처음 발령받아 일을 배운 곳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듯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 출입국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관리과 체류팀 **이은주** 계장

"직원들의 미소를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 내부 민원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팀이 내조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관리과 운영지원팀 **김민섭, 오정음** 반장

하나의 시도, 한-아세안 이주네트워크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을 향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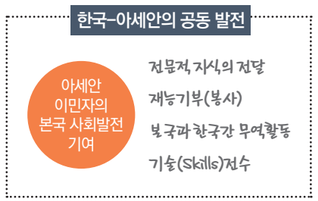
한국은 그 동안 이민자, 특히 개도국에서 온 사람들은 단순히 지원받아야 할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최근 이민정책의 흐름이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경 넘어 송출국 및 국제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쪽으로 전환되면서 한국 내 이민자의 능력이 재조명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민자의 역량을 활용한 본국 사회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그 성과가 증명 되었다. 함께의 가치가 주목받는 요즘 이들의 성과는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이민정책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글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국제이민협력, 한국의 이민정책에 길을 제시하다

지난 6월 '한국의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한국이민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에서 150명이 넘는 학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진행되는 활발한 이민정책 논의 가운데 '지속성 속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꼽힌다. 특히 필자는 '지속성 속의 변화' 요소 중 하나로 국제이민협력 분야에 주목한다. 기존의 2차 기본계획에서 '송출국과의 협력', '개도국의 개발을 고려한 이민정책', '이주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와의 협력' 은 국제이민협력 분야 정책과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과제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제는 국제이민협력 분야에 속한 정책과제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이 되도록 과제의 내용과 방법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단언컨대, 3차 기본계획에서 국제이민협력 분야의 '지속성 속의 변화'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국제이민협력 정책과제를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로 현 단계 국내 체류 주요 이민자의 본국과 한국, 공동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개발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이 2016년에 추진한 국제이민협력 사업, '한-아세안이주네트워크(ASEAN-Korea Migration Network, AKMN)'라는 새로운 시도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이민자 본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4가지 영역

IOM이민정책연구원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 OIM IOM • MRTC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 · 교육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내 · 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발전으로 가는 도전, '이민자 본국 사회개발 프로젝트'

'한-아세안 이주네트워크'의 목표는 한국과 아세안 양측의 국제이주 분야 관련 학자, 공무원, 민간단체, 그리고 이주당사자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국과 아세안 및 아세안 회원 각국에 보다 효과적인 이주관리와 이민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1989년 대화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국과 ASEAN의 공동 발전과 전반적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자원 개발 및 교류 분야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수행됐다는 점에서 공공의 기능도 담보하였다. 무엇보다 국내 체류 이민자 중 중국출신을 제외하면, 아세안 회원국 출신 이민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자 송출국과의 협력', '이민을 통한 개도국의 개발',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는 세 측면에서 현 단계 한국 정부의 국제이민협력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정확히 부합한다.

'한-아세안 이주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세 부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국제이주 관련 학자 회의', '이주관련 정부 부처 공무원 워크숍', 그리고 '국내 체류 아세안 이민자의 본국 사회발전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이민자의 역량을 활용한 본국의 사회개발 프로젝트'는 국내 체류 아세안 출신 이민자 중 본국과 한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예: 유학생(D-2, D-10), 숙련기술인력(E-7), 정주형 이민자(F계열 등)]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고 전국적 홍보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혼이민자 4팀과 유학생 5팀을 선발했다. 유학생에 비해 한국에 오래 거주한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강점을 살려 귀환이주여성의 본국 재통합 지원 관련 멘토링, 입국 전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문화 교육 등을 실시했고 유학생들은 용접/금형 기술의 전수, 아동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콩 가공식품기술 전수, 벽화 그리기 사업 등 한국의 대학에서 배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본국에 전수하는 활동을 했다.

이민자 역량 활용, 가시적 성과와 그 이상의 의미

2016년 5월 공고와 모집에서부터 2017년 2월 프로젝트 결과보고회의 전 과정을 볼 때,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이민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본국과 한국 양쪽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적 자원임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민자를 사회통합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민자의 사회통합 능력과 의지가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사회통합 정책으로의 전환 계기를 보여준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과는 국내에서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관점 전환 그 이상을 보여준다. 이민자가 이주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정보,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재원을 활용하여 본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 때문이다. 한국과 이민자의 본국이 함께 발전하는 이민정책의 성과는 이렇듯 이민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와 그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파급효과를 촉진하려는 작은 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부나 학자집단도 아닌 이민자가 국제이민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을 쟁점으로 한 공공외교의 관점에서도 본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K.I.S. CALENDAR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제65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

지난 7월 19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식이 열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실천하며,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법무행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부정부패 근절, 약자를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진정한 정의 실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법무부와 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 위해 손 잡아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17년 2월 20일부터 운영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그 동안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조회시스템 덕분에 신원조회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져 외국인 사건 · 사고 처리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 · 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정책 협의 등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7년 3월 13일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언어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제도 도입 후 임대차계약 · 범죄피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5년간 정책을 충실히 마무리

법무부는 17년 4월 21일 제20회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년~2017년)을 매듭짓는 마지막 해이다. 「2017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 해외인적자본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19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5대 부분 1,248개 과제를 협업하여 추진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하반기 중 단체관광객 전자비자제도 적용 대상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 동남아 3개국으로 확대하여 단체관광객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둘째, 국적법을 개정하여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 이민자의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국적제도를 개선할 예정

셋째, 이주여성 보호시설 30개소를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이민자 차별방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

넷째,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국경관리를 강화

다섯 번째, 원조대상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선도대학 지원 확대 등 국제교류 · 협력의 활성화 도모

법무부,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무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및 '세계인의 날' 10주년 해를 기념하여 4월 4일 그랜드앰버서더 서울호텔에서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특별히 이민정책분야 해외석학 파파드미트리우 이주정책협회 유럽 의장과 크리스티앙 요프게 베른대 교수가 기조 강연자로 초청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 이민정책이 말한다.'(The Future of Korea : An Immigration Perspectiv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과 세계인의 날 지정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이민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개최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17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 · 국익 ·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하였다.

최근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난민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하였다.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향후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난민 인권강화 방안과 난민 수용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서 난민의 인권과 국익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내 인구 4% 외국인 시대 '세계인의 날' 맞아 모두가 함께 어울리다

법무부는 17년 5월 19일 올해로 제10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국내 체류외국인에게 법률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촉진기간' 운영

법무부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불법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자진 출국자는 출국 후 비자 소지 등 입국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다시 입국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자진출국자도 출국 1년 후에 요건을 갖추면 입국할 수 있다.

한편, 자진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증원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 영남권 광역 단속팀'에 이어 '중부권 · 호남권 광역 단속팀'을 추가신설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연간 20주간 시행할 것이며, 불법체류를 유발하는 불법 입국 · 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양공항, 중국인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법무부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및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자가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국할 경우 제주입도 조건을 면제함으로써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을 관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양국제공항에 한해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소지 중국인 관광객이 양양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계올림픽 관광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법무부와 강원도는 양양공항 무비자 입국허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광객을 빙자한 불법체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관서, 시군 등 지자체가 공조하는 불법체류자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양양공항 제주입도 면제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맞춤형 올림픽 관광 상품 출시, 중국 중심으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올림픽 기간 재방문, 공항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일조하고 더불어 양양국제공항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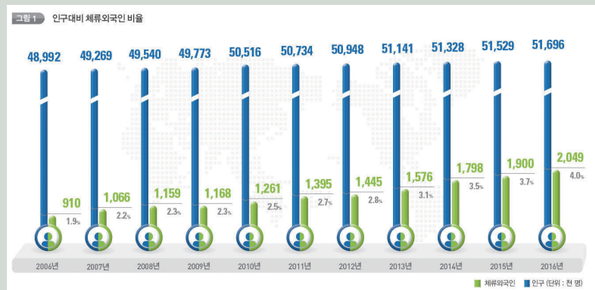
2016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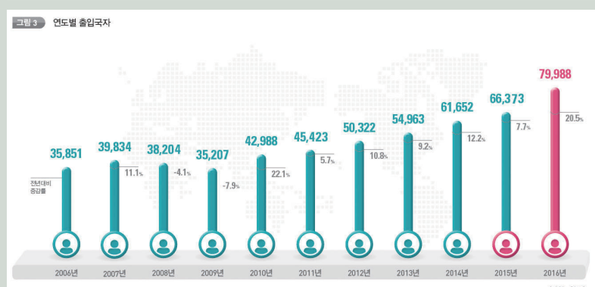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2016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2016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 4%(2,049,441명)를 차지하였고,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체류 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2006년 1.9%(91만 명)에서 2016년 4.0%(20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6년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49.6%(1,016,607명), 베트남 7.3%(149,384명), 미국 6.8%(140,222명), 타이 4.9%(100,860명), 필리핀 2.8%(56,980명), 우즈베키스탄 2.7%(54,490명)순이었으며, 베트남이 역대 최초로 체류 외국인이 두 번째 많은 나라가 되었다.

출입국자는 2010년에 4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6년 만에 두 배인 약 8천만 명(7,999만 명)에 다가섰다. 2016년 출입국자는 79,987,974명을 기록, 2006년 35,851,121명에 비해 규모가 약 2.2배 커졌으며, 이중 국민출국자는 11,833,511명에서 22,659,640명으로 약 1.9배 증가였고, 외국인입국자는 6,241,256명에서 17,418,307명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나와 너, 그래서 행복한 우리

지난 5월 20일 제10회 '세계인의 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그 중 선정된 수상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최우수상

세계가 하나 된 케이크
추상철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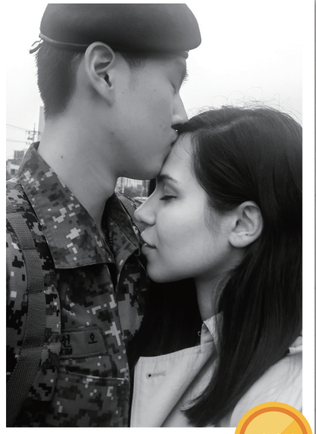
서로의 별이 되다
김민주

장려상

즐거운 김장체험
강태수

장려상

다 함께 비벼먹어요
이광만



장려상

CAPTURING HARMONY
NAJAFIZADEH SUDEH

우수상

서울의 거리 그리고 세계인
김대호

우수상

정신집중
이길호

CONTEST! 공존 사진 공모전

공모주제
행복, 한 보따리 담아서:
한국의 전통시장

응모기간
2017년 10월 31일 까지

- **응모자격**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 **파일형식** jpg파일
- **참여방법** july@theseven.co.kr 로 보내주세요 (1인당 3점 이내)
- **결과발표** 2017년 12월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공존 2017 겨울호〉를 통해 발표
- **시상내역**

시상구분	인원	포상내용
으뜸상	1명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버금상	2명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돋움상	4명	1만원 디저트 교환권

공존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행하는 소통매거진 〈공존〉을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세요.

〈공존〉 앱북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ios용 Android용

다누리 앱

필요한 한국생활 정보 쏙쏙~

여행과 체류는 엄연히 다르다. 어떤 나라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회에 좋든 싫든 적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누리' 앱은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또는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한다.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투어가이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들려드립니다

역사와 문화라는 귀한 세월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를 앱 하나면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스마트투어가이드'는 4개 국어로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폭넓은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세계유산, 국립 박물관 투어 같은 다양한 테마의 즐거운 여행을 제안한다.

N SeouL 서울야경명소

서울 야경 Best Point를 한눈에

빛으로 물든 서울의 밤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연인 혹은 외국인 친구와 함께 보고 싶을 때, 'N SeouL 서울야경명소' 앱을 이용해보시라. 30여 곳의 야경명소를 메뉴로 쉽게 볼 수 있고 영어 서비스가 지원되어 외국인이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게다가 서울시티투어버스 야간 코스까지 안내하고 있다.

올바른 분리수거

한국에선 재활용이 필수라고요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 흔히 발행하는 민원이 바로 분리수거 문제다. 한국만큼 세세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문화권이 적기 때문. 쓰레기 구분은 물론 분리수거 요령과 각 지역별 쓰레기 배출날짜까지 알려주는 '올바른 분리수거' 앱을 사용하면 한국의 분리수거, 어렵지 않다.

합격 운전면허

**11개 외국어 지원,
누구나 편하게 공부해**

'합격 운전면허' 1차 필기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앱이다. 문제은행과 모의고사를 제공해 어디에서든지 필기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 늘어나는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해 무려 11개국 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큰 장점. 특히 한국어 도우미 기능을 사용하면 외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주변 한국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Immigration &Visa

**출입국관련 민원사무,
앱으로도 가능해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바빠졌다. 국제외국인출입국지원센터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행기관을 통해 민원사무 신청과 처리를 할 수 있는 'Immigration&Visa' 앱을 운영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라면 빨리 'Immigration&Visa'를 다운받자.

법무부

당신의 생각이 법무부의 메시지가 됩니다

심각한 성폭력 문제
성폭력 근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주세요

제 2회 법무부 성폭력 근절 포스터 공모전

접수기간 : 2017. 6. 26. ~ 8. 28.

발표 : 2017. 9. 15. (법무부 페이스북, 블로그, 홈페이지 공지)

시상식 : 9월 중 (수상자 개별 연락)

응모자격

대학(원)생 / 일반부 ▶개인 및 4인 이내

제출방법

참가신청서를 법무부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다운받고
신청서와 공모작품을 접수 메일(kys8318@korea.kr)로 제출
파일 제목 : 포스터 공모출품 – 김OO
파일명 : 포스터 공모출품 – 김OO.jpg
해상도 : 300dpi
▶수상작은 추후 원본파일(ai, psd등) 필히 제출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법무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
(http://justmoj.blog.me)

시상내용

구분	상금
대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2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3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공모주제

"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든 생각"